

장흥군 국가·전남도 시설물 무상양여 추진

장흥교도소·장흥댐 생태문화공원·도립대 캠퍼스 지역민 위한 문화예술 공간·관광 자원 활용 계획

장흥군이 방치되고 있는 국가나 전남도 소유 시설물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중인 옛 장흥교도소 건물(연면적 3만6114㎡)과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장흥댐 '생태문화공원'(14만968㎡), 전남도의 옛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아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장흥군은 우선, 한국수자원공사의 생태문화공원을 무상 양여받을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부산면 지천리 일대 14만

968㎡ 규모로 조성한 생태문화공원은 장흥댐 조성 이후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연간 3억원의 유지관리비만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수자원공사로부터 관련 시설을 넘겨받아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예를 들면 은퇴자들을 위한 훈련센터를 조성, 통합의료한방병원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과 만나 생태문화공원 무상양여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5년에도 축구장 등

체육공원 시설부지 일부를 무상양여한 바 있다.

장흥교도소도 무상으로 넘겨받아 복합 문화예술공간을 지어 지역민 문화 향유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군은 이미 '장흥교도소 복합 문화예술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군은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작가 한강을 비롯, 장흥 출신 문학인들의 한류문학관 건립, 장흥역사를 스토리화한 역사문화 스토리관, 전통문화융합미디어 공연관 등을 검토중이다.

다만, 열악한 재정행편을 고려하면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는 만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장흥군 복안이다. 장흥교도소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옛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부지(3739

㎡)도 전남도에서 넘겨받아 축산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은 앞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본관동(942㎡)을 군 산하시설인 축산사업소 사무실로 활용키로 하고 전남도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다.

도립대 장흥캠퍼스의 경우 장흥군이 지난 1997년 7월 교육청에서 땅을 사들여 도립대 설립추진위원회에 기부채납한 점을 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돌려주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전남도 등이 대체부지 제공 등 "조건없는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자칫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10개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장흥군이 군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장흥군은 지난 12일 회진면과 대덕읍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10개 읍·면을 도는 '군민과의 대화'〈사진〉 자리를 마련했다. 민선 6기 후반기 군정 방향을 알리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현안에 대한 추

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이 읍면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소통행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국도 23호선 개량 국비 265억 확보

장흥군은 국도 23호선 시설개량을 위해 국비 265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도 23호선은 장흥군 북부에서 남부를 관통하는 핵심 도로로, 지역 경제와 관광, 물류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4차선 확장에 109억원, 도로 확장 및 선형 개선에 77억원, 도로 직선화 79억원 등 265억원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도 23호선 시설개량이 마무리되면 장흥군 남부로 이어지는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현재 중단된 제주 여객선 재취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 왕인농업대학 한우기초과정 수강생 40명 모집

영암군이 한우 전문 농업인 양성에 나선다.

영암군은 오는 2월 1일까지 한우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왕인농업대학 한우 기초과정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한우 사육 농민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장기 기술 교육을 실시해 합리적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키우겠다는 게 영암군 계획이다.

영암군은 2000만원을 지원해 연간 100시간 이상의 기술·실습·현장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또 품목별로 농업인들을 선정, 장기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희기자 jbh@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창단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九江九山)'이 창단,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구강구산은 연기와 생업을 병행하는 8명의 청년들로 이뤄진 연극단으로, 지난 4일 노래극 '바람노래'를 첫 무대에 올렸다. 극단 구강구산은 고용노동부 주

관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진아트센터가 진행한 강진 전문 공연단체 창업 프로그램의 첫 결과물이다. 이들은 지난 11일에는 코미디극 '오진날'도 발표하는 등 참신한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 '청자골 장미' 틈새시장 인기몰이 32개 농가 고소득

강진 장미가 인기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칠량면 땅심화훼영농범인이 재배, 판매하는 '청자골 장미'가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화훼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청자골장미는 강진의 온화한 기후,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색과 향기 등 품질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 전국 화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현재 31개 농가의 생산량이 전남 전체 장미 생산량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20억원 가량을 지원하며 장미산업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진군의 노력도 한몫을 했다.

이러가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액배설시설로 재배법을 바꾸도록 하고 보온커튼과 보광등, 액화탄산가스 등 난방비를 절감하고 광합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대의 경쟁력이 높은 장미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전국 최고 화훼단지조성 조성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강진군이 전국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강진군은 지난달 21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18 관광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을 9개 축제 개최 "관광객 500만 유치"

서울서 2018 관광정책 설명회

"A자 닮은 강진 곳곳을 둘러보세요." 강진은 지난해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12개 축제를 기획,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올해도 9개 축제를 열고 5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 강진만의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데 총력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새해 관광정책 유치 전략은 영어 알파벳 A자를 닮은 강진명과 가우도 출렁다리를 모티브로 했다. 이른바 '2018. A로의 초대'다.

강진군은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A로의 초대, 강진군 관광정책 설명회'를 국내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강진의 올해 관광 테마를 비롯해 푸소, 야간여행 등 다양한 체험형 여행상품, 관광 인센티브 정책 등 관광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여행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올해 전국 여행객들을 강진으로 불러들이는 축제의 시작은 '제 2회 강진의 풍과 떡 이야기 여행'이다.

강진은 이외 ▲강진 군동금곡사 벚꽃길 소풍 ▲강진전라병영성축제 ▲영랑문학제 ▲강진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강진 청자축제 ▲강진마량미향축제 ▲남도음식문화대전 ▲강진만 춘추는 갈대축제 등을 개최하면서 전 국민에게 시골도시 강진을 알리려는 계획이다.

또 농가 숙박형 학생 체험행사인 '푸소(FU-SO) 프로그램도 차별화를 강화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강진군은 특히 관광객 유치를 지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차별화된 지역 특산물 브랜드 홍보·판매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 주민을 주인공으로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참신한 축제를 개최, 강진 문화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h3>북구, 삼각동 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h3>나주, 다도면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필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h3>콘도 / 무인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60억, 매매 - 협의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우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h3>공산면, 대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4200만원 	<h3>비금도, 팻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분할매매가 	<h3>거문도, 펜션부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토지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1억 6000만원 	<h3>중동,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